

## 호남민심 어디로 ... 李 “막판 결집”·尹 “변화 조짐”

민중, “호남 결집 없인 승리 어렵다”... 투표율 높이기에도 총력  
국힘, “호남이 변해야 정권 교체 가능”... 2030 민심잡기 온 힘

### 대선 D-30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민심’이 대권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호남 민심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호남 민심의 결집 없이는 대선 필패’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의 변화를 이끌어야 정권 교체를 견인할 수 있다며 총력을 펼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일단 민주당-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 주자로의 결집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KSOI가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54.5%의 지지율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에 육박하는 19.2%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앞서 리서치뷰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31%(이 후보 55%)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상승세에 국민의힘은 서진(西進)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윤 후보는 6일 광주를 방문,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벌써 5번째 호남행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예비총보 발송(230만 가구·전체 세대수의 10%)으로 호남에 ‘울인’했다. 오는 12-13일에는 무궁화호 전세 기차인 이른바 ‘윤석열차’를 타고 호남 구석 구석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도 호남 공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표의 설날인 지난 1일 오전 광주 무등산에 오르다가 하던 3-4일에는 전남 신안·완도·장흥·고흥 등 다도해 일대를 순회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호남의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호남 득표율 목표도 상향 조정했다.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 20%대를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구도 철폐를 통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이라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호남의 한 표는 실질적으로 두 표 이상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던 표를 빼앗아 오는데다, 이는 수도권에 출향 호남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 20%대 전후의 득표율이 이뤄진다면 정권 교체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윤 후보가 전국적인 지지로 승리한다면 집권 초기 여대야소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호남 민심이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로 결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가 85-9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다. 호남에서의 윤 후보 지지율 상승세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기인한 ‘거품’이라는 것이다. 호남 민심의 특성상, 막상 투표소에 들어가면 윤 후보를 찍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당선은 호남을 ‘정치적 섬’으로 고립시킨다는 것을 호남 민심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결국 윤 후보가 9%대의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이재명 바람’에 점차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 후보가 20%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우려다. 또 이 후보가 호남 민심에 ‘우리 주자’로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을 전후해 고민정, 김병국, 임오경, 장경태, 서영석 의원 등이 방문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에도 다급함이 담기고 있다. 호남 민심의 결집 없이는 대선 승리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만간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전남에 상주하는 것은 물론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방문하는 ‘별대 전략’으로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흐름대로 간다면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코로나 19 대확산까지 겹치면서 호남지역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막판 이재명 후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윤 후보의 득표율도 두 자릿 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최민정·황대현 출선 쇼트트랙 골든데이 ▶18면  
문화도시를 가다 - 독일 뉘른베르크 ▶22면



윤석열 5·18민주묘지 참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지나 묘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설 연휴 뒤끝 코로나 확진자 폭증

광주 1186명·전남 1192명  
전국 첫 10대 사망자 발생  
오미크론 확산에 계속 늘 듯

예상대로 설 명절 연휴 이후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연휴 첫날과 비교해 일주일여 만에 두 배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 동시에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는 3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거세지면서, 전국 첫 10대 사망 사례까지 발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186명, 전남 1192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전남 모두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에선 앞서 지난 5일 0시

기준 역대 최다인 12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도 0시 이후 오후 2시 기준 1041명이 신규로 확진되는 등 3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광주에선 전국 첫 10대 사망자도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됐던 고교생 A(17)군은 숨지기 전날 호흡 곤란과 흉통을 호소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군은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주일간 재택 치료를 하고 같은 달 31일 격리 해제됐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인을 추정했으며 방역 당국도 이를 토대로 A 군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했다. A군은 체육을 전공할 만큼 건장한 체격에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0~9세 사망 사례는 3건 있었지만 10~19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 이동 영향 등이 겹치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설

제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477명(광주)·320명(전남)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복지시설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도시 지역인 여수(212명), 순천(170명), 목포(141명), 나주(139명), 광양(105명) 등 시단위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무안 68명, 영광 55명, 장성 37명, 화순 35명, 영암 34명, 진도 27명, 담양 25명, 보성 22명, 구례·완도 각 19명, 강진·해남 각 18명, 함평 16명, 고흥 13명, 곡성 11명, 신안 6명, 장흥 2명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광주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휴원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긴급 돌봄을 하고 시설별 통학버스도 운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신선한 전남의 맛을 쉽고 빠르게

# 남도장터

정기배송 서비스 구독경제!

전라남도의 건강하고 맛깔난 특산물들을  
편리하게 정기적으로 우리집에 ~  
온라인 쇼핑몰(www.jnmall.kr)에서 만나보세요

남도장터
검색

